

‘낙인’이라는 무기를 가진 언론

교수칼럼

김민웅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베트남 전쟁이 한참이던 중에 터져 나온 〈펜타곤 페이퍼(Pentagon Paper)〉는 미국 연방정부의 비밀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펜타곤은 미국 국방부의 별칭이고 이 문서는 국방장관이던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S. McNamara)의 지휘 아래 작성되었는데, 1945년에서 1967년까지 미국이 베트남에 어떻게 개입하고 움직였는지를 기록했다. 물론 비밀로 분류된 국가안보문건으로 공개는 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었다.

반면에 당시 격화되던 반전(反戰) 운동은 〈펜타곤 페이퍼〉의 공개로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1971년 뉴욕 타임즈지와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 내용을 신자 닉슨 정부는 즉각 공개금지 조처를 취했으나 연방법원에서의 치열한 법정 투쟁 끝에 언론이 승리했다. 여기서 보다 중요했던 점은 이들 언론이 〈펜타곤 페이퍼〉 공개를 통해 미국 연방정부의 거짓을 폭로,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렸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이 베트남의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전쟁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정부 엘리트가 주도한 침략전쟁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미국에 의한 베트남 전쟁은 더

는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언론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이토록 중요했다. 민주주의 역시 바로 이러한 언론의 역할로 시민들의 기본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연방대법원도 국가안보가 진실에 기초하지 않으면 도리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펜타곤 페이퍼〉의 공개는 바로 이 문건 작성에 참여한 다니엘 엘즈버그(Daniel Ellsberg)에 의해 이뤄졌다. 그는 이 전쟁이 ‘범죄’라는 확신을 갖게 되자 자신이 법적 처벌(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알리는 것에 자기 운명을 걸었다. 그는 이후 무죄석방이 되었고 평화에 대한 기여로 여러 상을 받게 되었다.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고 진실에 다가서는 용기를 갖지 않으면 시민들은 무지해진다. 하지만 언론이 그러한 기능보다는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맥락이 빠진 채 어떤 사안을 ‘사실’로 포장해서 알리게 되면 그 언론에 의한 희생자가 생겨나게 된다. 언론은 누구보다도 거대한 스피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 자체가 권력이 되는 순간부터 언론의 발언권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힘이 세진다.

이 과정에서 ‘낙인효과’가 생겨나고 ‘희생제’가 되풀이 된다. 언론에 항거해서 자신의 진실을 밝혀도 언론이 이를 다뤄주지 않으면 그는 이미 여론의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사회적 소멸을 강요당한다. 그것은 일방적 매도다.

누군가가 그렇게 표적이 되어



다니엘 엘즈버그는 〈펜타곤 페이퍼〉를 공개해 미국 연방 정부의 거짓을 폭로했다.

(사진=중앙일보DB)

‘혐오와 죽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살해를 즐기는 사회’가 되고 만다. 억울한 사람이 자기 결백을 하소연해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의혹의 제기 자체가 혐의를 확정하는 일이 되면 그런 사회는 그 누구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불행하고 위험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태를 막아내지 못하면 언론은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빅 브리더’ 행세를 하게 된다. 표적이 된 존재를 근거로 확실하지 않은 기사로 질타해 고립시킨 뒤 방어권을 해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봉고시키는 사건이다. 이런 빅 브리더의 주장을 검증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빅 브리더의 지시에 복종하는 인간성이 파괴된 현실이 지속된다. 한바탕 희생제를 치룬 뒤 또 다음의 희생자가 이어진다. 그건 어느 누구도 될 수 있다.

진실에 다가서는 능력은 따라

서 매우 중요하다. 앞 뒤를 살펴 보고 좌우의 맥락을 짚어보는 능력은 왜곡된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기본 태도다. 아니면 권력이 된 언론이 설치한 무허가 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동 가해자가 되고 만다.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보통의 착한 개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주도자’가 된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경고다. 생각을 바탈하는 언론은 분명한 악령이다. ‘낙인’이라는 무기를 함부로 휘두르는 자들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굴복하면 ‘노예의 시간’이 시작된다. 언론이 권력에 저항하던 시대는 지나고 언론이 권력이 된 시대에 ‘의식의 혁명’이 절실히 해졌다. 우리의 존엄성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그건 ‘생각하는 힘’에서 나온다. 그런 사회에서 언론도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가게 될 것이다.

참여마당

최재식
철학 2016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 학교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가장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어휘는 ‘돈’이다. 학교가 돈이 없다는 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짜증나는 일이다. 돈이 없으니 수업이 안 열린다. 교강사들은 적정 인원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낡은 강의실에서 좋지 못한 기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보직을 받은 교수들의 경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부서를 굴려야 한다. 그러나 연구도 제대로 못한다. 임금 부담으로 인해 학교는 행정직원을 충분한 인원만큼 충원하지 못한다. 학교 직원들의 임금수준이나 복리후생수준, 적정 직원 수 대비 인원충원율도 낮아지고, 그만큼 노동 의욕도 떨어진다.

돈을 끌어올 수 있다면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쉬워질 것이다. 대학이 어디서 돈을 끌어올 수 있을까? 세 가지 방법이 떠오른다. 등록금 인상. 돈 많은 기업의 후원. 국고 보조. 그런데 왜 하필 각각의 방법들로 대학이 돈을 끌어와야 될까? 이 고민은 ‘대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대학들은, 심지어 사립대학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규모의 국고 보조를 받고 있다. 국고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사립대학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분명 정부는 대학을 어느 정도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다.

이 모순은 어디에서 올까? 한국 교육기관의 역사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고도성장기 폭증하는 가정의 교육 수요와 사회의 고급 인력 수요를 공공영역에서 소화할 수 없었다. 정부는 사립학교 설립을 유도하고 민간 대학 인가를 쉽게 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학에는 공적 속성과 사적 속성이 모두 부여됐다.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지지가 없었더라면 소위 한국의 ‘명문대’들은 지금의 지위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대학은 사회 전체가 사회 진보를 위해 지탱해온 고등교육기관이다. 대학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대학이 기업화된다면 당연히 대학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은 사회 전체가 지탱해왔다. 당연히 대학은 사회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대학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에의 국고 보조를 확대하고 사학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사안의 당사자인 우리 학생들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학 운영에 참여해야만 할 것이다.

가정의 달 기념

“힘을 내요! 경희 동문!” 이벤트

경희의료원이 당신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기 간 : 2020년 6월 30일(화) 까지
대 상 : 경희동문 본인 및 가족
우대혜택 : 모든 건강검진 프로그램 50% 할인
문 의 : 02-958-8711~3

(경희의료원 본관 2층 동서건강증진센터)

[우대 프로그램 안내표]

	우대금액 (여성 기준)	프로그램 구성 (여성 기준)
기본건강검진	29.5만원	기초검사, 혈액검사, 정밀혈액검사, 혈증기계검사, 심혈관계검사, 소화기계검사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치과검사, 한방검사, 여성의학검사
그린검진 (30대)	52.5만원	기본건강검진+갑상선초음파, 유방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자궁경부암, 수면위 내시경, A형간염
블루검진 (40대)	67.5만원	기본건강검진+갑상선초음파, 유방초음파, 부인과초음파, 복부CT, 수면위대장내시경
골드검진 (50대)	90만원	기본건강검진+관상동맥CT, 흉부CT, 심장초음파, 결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유방초음파, 부인초음파, 골밀도검사, 수면위대장내시경

※홈페이지(www.khmcmc.or.kr)에서 더 많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대학생의 권리!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신청기간 / 20.5.20. (수) ~ 6.18. (목) 18시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신청제출 및 기구원 동의

20.5.20. (수) ~ 6.23. (일) 18시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신청문의 1599-2000

신청기간

신청기간

20.5.20. (수) ~ 6.18. (목) 18시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신청제출 및 기구원 동의

20.5.20. (수) ~ 6.23. (일) 18시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신청문의 1599-2000

신청기간

신청기간

20.5.20. (수) ~ 6.18. (목) 18시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신청제출 및 기구원 동의

20.5.20. (수) ~ 6.23. (일) 18시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신청문의 1599-2000

신청기간

신청기간

20.5.20. (수) ~ 6.18. (목) 18시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신청제출 및 기구원 동의

20.5.20. (수) ~ 6.23. (일) 18시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신청문의 1599-2000